

전략산업 공급망의 탈중국 시도 지속 중인 미국



Hana China Weekly | 2026.8.7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CXMT(688825.SH): 애플 DRAM 공급 협상 무산, 베이징 신규 팹 증설 검토 중

- 8/5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용 LPDDR5X 등 모바일 D램 공급가 인하를 요구했으나 CXMT가 거절하며 협상이 무산되었음. CXMT 제시가는 삼성·SK하이닉스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전자 시장의 전통적 가격 협상 강자인 애플조차 이번엔 공급업체 우위 구도에 직면.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대기업의 대규모 메모리 확보와 강한 내수 수요가 CXMT의 가격 결정력을 뒷받침 함. CXMT가 애플의 까다로운 품질 인증과 가격 인하 요구를 수용해 수익성을 훼손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
- 8/3 로이터에 따르면 CXMT는 베이징 이창에 두 번째 12인치 DRAM 팹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및 국유계 투자자들과 자금조달을 논의 중.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생산능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상하이·허페이 증설과 함께 추진될 경우 CXMT의 중장기 생산능력이 기존 월 60만 장 목표를 추가로 상회할 가능성 높아진 상황.

중지쉬창(300308.SZ/3308.HK): 미 행정부 광모듈 수입 금지 조치 가능성에 주가 급락

- 8/5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신형 데이터센터 광모듈 수입 금지 규정을 초안 작업 중이라는 로이터 보도에 주가가 장중 급락. 데이터센터 광모듈 점유율 1위(약 27%)인 중지쉬창 직접 타깃으로 지목되며 투심이 급랭. 다만 규정은 신형만 금지하고 기존 인증 모델은 허용하는 구조이며, 중지쉬창은 "아직 확정된 규제 문서가 없어 영향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대응. 8/5 A주/H주는 각각 7.3%/5.2% 하락. 다만, 미 규제가 실제로 착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 1) 여전히 초안 단계로 향후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고, 2) 이미 설비 인증을 받은 기존 모델은 미국 내 판매·사용이 가능해 2026년 확정된 인도 물량은 영향권 밖이라는 점에 시장 우려가 축소되며 익일 A주/H주는 각각 3.1%/0.7% 상승.

미니맥스(0100.HK): 신규 멀티모달 생성모델 MiniMax H3 출시

- 7/31 미니맥스가 신규 멀티모달 생성모델 MiniMax H3를 공식 출시. 음성이 포함된 영상을 최장 15초, 2K 해상도로 출력 가능. 벤치마크 플랫폼 Artificial Analysis 평가에서 H3는 현재 영상 편집 부문 세계 최고 성능 모델로 집계, 오디오가 포함된 텍스트-영상 변환 부문에서 2위를 기록. 미니맥스는 며칠 내에 모델 가중치를 공개할 예정. 미니맥스는 H3 모델의 토큰나이를 변분 오토인코더 방식의 'H3-VAE'로 새로 설계해 압축률을 높였고, 2K 해상도로 H3를 구동하는 비용이 주요 경쟁 모델의 3분의 1 미만이라고 발표. 프리뷰 분석 사이트 kie.ai에 따르면 얼리 액세스 테스터들은 15초짜리 2K 클립 하나를 약 1달러 수준에서 생성했다고 보고.
- 8/6 강구통(선강통) 매매 종목 리스트에 편입. 홍콩 상장 이후 본토 투자자의 직접 매매가 가능해지며 남향 자금 유입 기대가 부각. 8/6 미니맥스 주가는 17.1% 상승 마감.

미니맥스

상장 국가

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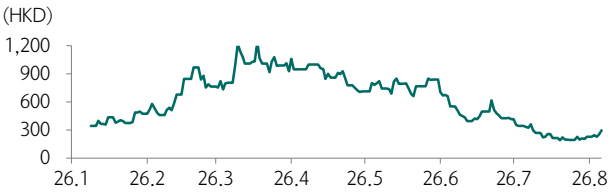
섹터

IT 서비스 및 컨설팅

시가총액(조원)

21.3

최근 주가 추이



신규 멀티모달 생성모델 MiniMax H3 출시

- 7/31 미니맥스가 신규 멀티모달 생성모델 MiniMax H3를 공식 출시. 음성이 포함된 영상을 최장 15초, 2K 해상도로 출력 가능. 벤치마크 플랫폼 Artificial Analysis 평가에서 H3는 현재 영상 편집 부문 세계 최고 성능 모델로 집계, 오디오가 포함된 텍스트-영상 변환 부문에서 2위를 기록. 미니맥스는 며칠 내에 모델 가중치를 공개할 예정. 미니맥스는 H3 모델의 토큰라이저를 변분 오토인코더 방식의 ‘H3-VAE’로 새로 설계해 압축률을 높였고, 2K 해상도로 H3를 구동하는 비용이 주요 경쟁 모델의 3분의 1 미만이라고 발표. 프리뷰 분석 사이트 kie.ai에 따르면 얼리 액세스 테스터들은 15초짜리 2K 클립 하나를 약 1달러 수준에서 생성했다고 보고.

H3 오픈소스 공개, 주요국 라이선스 통제 병행

- 8/4 미니맥스는 신규 영상 생성모델 H3를 오픈소스를 미국과 EU, 영국, 한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는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 개발자에게 모델 가중치를 공개해 무료로 사용·수정·배포할 수 있게 했으나, 해당 지역 이용자는 별도의 공식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미니맥스가 컴플라이언스 통제와 안전장치를 확인해야 사용을 승인함. 영상 생성모델 H3의 오픈웨이트 공개 이후 국내외 협력사 100곳 이상이 연동을 완료. 첫 오픈소스 옴니모달 모델로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음성을 통합 처리하고 동급 대비 낮은 가격을 앞세운 가운데, 공개 직후 생태계 확산이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

강구통 편입 첫날 17% 급등

- 8/6 강구통(선강통) 매매 종목 리스트에 편입. 홍콩 상장 이후 본토 투자자의 직접 매매가 가능해지며 남향 자금 유입 기대가 부각. 8/6 미니맥스 주가는 17.1% 상승 마감.

AI/테크

알리바바(9988.HK/BABA.US): 음성인식 대형언어모델 공개

- 7/31 알리바바가 음성인식 대형언어모델 Qwen-Audio-3.0-ASR-Flash를 출시. 전문 용어·업종별 어휘 인식에 특화해 의료 분야 정확도 95% 이상, 오타자율 1.7%로 성능평가 플랫폼 글로벌 1위를 기록.
- 8/3 최신 플래그십 모델 Qwen3.8과 기업용 AI 오피스 플랫폼 QwenWork 공개 베타를 동시 개시. Qwen3.8은 총 2.4조 파라미터에 활성 95B의 MoE 구조로, 100만 토큰 컨텍스트와 시각 이해를 지원하고 코딩 역량을 대폭 강화. 제3자 벤치마크에서 코딩 글로벌 4위, 종합 성능은 Claude 계열에 이은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으며, API 단가를 Opus 5의 24~40% 수준으로 책정해 성능과 가격을 동시에 겨냥. 시장의 관심은 AI 투자가 실제 매출로 이어질지에 연결되는데 알리바바는 고성능·저비용 모델과 기업 업무 워크플로우로 클라우드 토큰 사용량 증가로 수익화하는 구조를 겨냥. Qwen과 덩푁,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통합한 기업용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차별점으로 내세우는 모습.

답시크(비상장): 저비용 모델로 AI 설비투자 회수 가능성 부각

- 8/3 Artificial Analysis에 따르면 답시크 신형 모델 V4-Flash가 작업 한 건을 처리하는 데 약 0.03달러만 소요돼 주요 대형 AI 모델 중 가장 낮은 비용을 기록. 동일 작업에 3.15달러가 드는 Claude Fable 5의 약 105분의 1 수준으로, 비용 효율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인. AI 모델 경쟁의 축이 성능에서 비용 효율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며, 미국 빅테크가 AI에 쏟아붓는 막대한 설비투자자의 회수 가능성이 다시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는 모습.
- 올해 두 번째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며, 조달 전 기업가치 5,000억위안(약 690억달러)에 신규 500억위안 유치가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짐. 저비용·고성능 전략으로 주목받는 중국 대표 대형모델 스타트업에 자본이 집중되는 흐름.
- 8/3 SCMP에 따르면 답시크가 오픈소스 개발자를 대상으로 자사 '답시크 하니스(Harness)'의 베타 테스트 참여자를 모집. 하니스는 대형언어모델을 자율적으로 여러 단계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바뀌는 소프트웨어.

Z.ai(2513.HK): 개발자용 유료 구독 서비스 신규 가입 재개

- 7/31 Z.AI가 개발자용 유료 구독 서비스 GLM Coding Plan의 신규 가입을 재개. 앞서 AI 코딩 수요가 급증하며 가입 인원을 일시 제한했으나, 인프라 확충으로 다시 개방.
- 8/3 차세대 모델 GLM-5.3의 공식 소개 페이지가 사전 유출되며 기대감이 확대돼 주가는 +7.5% 반등. 공식 발표 전 단계로 구체 사양은 미확정이나, 앞서 재개한 GLM 코딩 서비스 수요 강세와 맞물려 신모델 모멘텀이 부각되는 모습.

텐센트(0700.HK): 플래그십 AI 모델 Hy3 해외 공략 추진

- 8/5 텐센트가 플래그십 AI 모델 Hy3의 해외 확대에 나서며 중국 AI 기업들의 글로벌 공세에 합류. 업무용 에이전트 WorkBuddy와 창작 스튜디오 Miora, 모델 플랫폼 TokenHub를 통해 전 세계 개발자·기업에 개방하고, WorkBuddy에서는 8/31까지 무료 제공. Hy3는 2,950억 파라미터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텐센트 역대 최강 모델로, 오픈AI 출신 야오순위를 기초모델 총괄로 영입한 이후 내놓은 첫 대형 업데이트.

메이투(1357.HK): 잠정 실적 발표, AI 응용 수익화 본격화 전망

- 7/30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익일 주가는 10.3% 강세 마감. 조정 순이익이 전년 대비 36~40% 증가할 전망이며, 6월 말 기준 AI 생산성 앱 연간반복매출(ARR)은 6.2억위안으로 47.8% 증가. 유료 구독자 1,844만 명, 영상·디자인 제품 매출 30.9% 성장 등 AI 응용 수익화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밝힘.

Moonshot AI(비상장): 신규 투자 라운드 진행 중, 밸류에이션 최대 500억달러

- 8/5 SCMP에 따르면 Moonshot AI가 이달 말 마감을 목표로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 중이며, 이번 라운드 밸류는 최대 500억달러로 전해짐. 이르면 연내 홍콩 상장을 겨냥해 해외 지주구조를 해체하는 중이며, 이번이 상장 전 마지막 조달이 될 전망.

CXMT

상장 국가

중국 본토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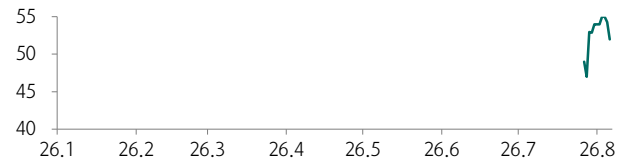
반도체

시가총액(조원)

689.6

최근 주가 추이

(CNY)



베이징 신규 팹 증설 검토 중

- 8/3 Reuters에 따르면 CXMT가 베이징 이창에 두 번째 12인치 DRAM 팹 건설을 추진 중이며,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및 국유계 투자자들과 자금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아직 협상 초기 단계로 총 투자액, 생산능력, 착공·양산 시점은 확정되지 않음.
- CXMT는 현재 허페이 2개, 베이징 1개 팹을 운영하며 총 생산능력은 월 약 30만 장 수준으로 추정. 기존 상하이-허페이 증설 프로젝트와 이번 베이징 제2공장이 모두 현실화될 경우 증장기 생산능력이 기존 목표였던 월 60만 장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음.
- 베이징 이창 측과 논의 중인 지원 규모로 최소 6,000만위안이 언급됐지만, 이는 신규 팹 전체 투자금액이 아니라 지방정부 지원의 일부에 해당. 로이터는 선단 메모리 팹 건설에는 통상 수십억~100억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
- 로이터는 이번 계획을 AI·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와 중국의 DRAM 자급률 제고 정책을 배경으로 한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평가. 특히 중국 지방정부들이 CXMT의 신규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
- 다만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와 선단 DRAM의 수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신규 생산능력 확대가 곧바로 선단 DRAM 출하 증가로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

애플 DRAM 공급 협상 무산

- 8/5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용 LPDDR5X 등 모바일 D램 공급가 인하를 요구했으나 CXMT가 거절하며 협상이 무산되었음. CXMT 제시가는 삼성·SK하이닉스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전자 시장의 전통적 가격 협상 강자인 애플조차 이번엔 공급업체 우위 구도에 직면.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대기업의 대규모 메모리 확보와 강한 내수 수요가 CXMT의 가격 결정력을 뒷받침 함. CXMT가 애플의 까다로운 품질 인증 요건과 가격 인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해 수익성을 훼손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

주요 PC 제조사, CXMT D램 칩 사용 시작

- 8/4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HP와 에이수스, 에이서 등 주요 PC 제조사가 메모리 부족 사태 속에 CXMT의 D램 칩을 소량 사용하기 시작. 올해 중반 CXMT 칩 인증을 마치고 미국 외 시장에서 판매되는 보급형 노트북에 탑재. 다만 CXMT가 화웨이 등 중국 고객에 물량 상당분을 우선 공급하는 데다, PC 업체들도 상위 3사(글로벌 점유율 90% 이상)를 의식해 사용량과 모델 수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

반도체

AMEC(688012.SH): 순이익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 8/4 상반기 잠정 실적을 예고. 매출액은 66.9억위안(YoY +34.9%)으로 컨센서스 4.2% 하회, 귀속순이익은 27억~29억위안(중간값 기준 YoY +297.0%)으로 급증. 다만 순이익 급증의 상당분은 외부 지분투자 평가차분익 약 19.8억위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올해 초 동종 장비업체 피오텍 지분 매각 차익이 포함된 일회성 성격. 비경상 제외 순이익도 상반기 기준 2배 증가해 장비 본업 역시 견조. 상반기 연구개발 투입은 20.4억위안으로 매출의 30.5%를 차지했고, 다수 신제품이 고객 검증 단계에 진입하며 플랫폼화 전략을 지속.

AI 인프라

중지쉬창(300308.SZ/3308.HK): 미 행정부 광모듈 수입 금지 조치 가능성에 주가 급락

- 8/5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신형 데이터센터 광모듈 수입 금지 규정을 초안 작업 중이라는 로이터 보도에 주가가 장중 급락. 데이터센터 광모듈 점유율 1위(약 27%)인 중지쉬창 직접 타깃으로 지목되며 투심이 급랭. 다만 규정은 신형만 금지하고 기존 인증 모델은 허용하는 구조이며, 중지쉬창는 "아직 확정된 규제 문서가 없어 영향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대응. 8/5 A주/H주는 각각 7.3%/5.2% 하락. 다만, 미 규제가 실제로 실행 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 1) 여전히 초안 단계로 향후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고, 2) 이미 설비 인증을 받은 기존 모델은 미국 내 판매·사용이 가능해 2026년 확정된 인도 물량은 영향권 밖이라는 점에 시장 우려가 축소되며 익일 A주/H주는 각각 3.1%/0.7% 상승.

빅토리아이언트(2476.HK): 엔비디아발 AI 서버 물량 확대 기대감 유입

- 8/3 엔비디아 수석부사장이 CPO가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 엔비디아가 협력사와 개발한 Spectrum-X CPO 스위치를 핵심 고객에 출하하기 시작하였으며 하반기부터 글로벌 AI 공장에 대량 도입될 전망. 이번 발표로 CPO 상용화 지연 우려가 축소. 엔비디아발 AI 서버 물량 기대감이 유입되며 빅토리아이언트 주가는 4영업일간 30% 급등.

CATL

상장 국가

중국 본토/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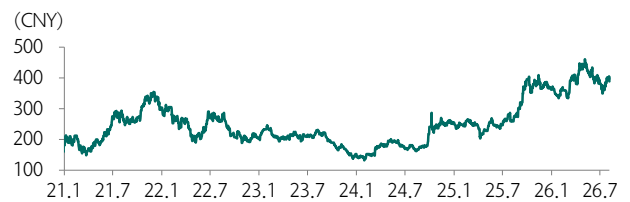
섹터

전기 부품 및 장비

시가총액(조원)

359.3

최근 주가 추이



이춘시 리튬광산 생산 재개 지연될 가능성

- 8/7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CATL의 이춘 JianXiaWo 리튬광산의 생산 재개설과 관련해, 이춘시 이평현 생태환경국은 공식 입장 발표. 당국은 현장 점검 당시 해당 광산은 생산을 중단한 채 설비를 정비 중이었으며, 광석 운반이나 파쇄 등 생산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힘. 또한 기업에 환경영향평가 승인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
- 해당 광산은 앞서 6/29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면서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고, 7월 초에는 현지 언론과 로이터 등이 '광산이 생산을 재개했다'고 보도되며 리튬 가격 하락 기대가 확대된 바 있음. 그러나 이후 상하이증권보는 환경영향평가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며, 7월 27일 환경영향평가 공시가 시작된 이후에도 최종 승인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이번 정부 발표는 현재는 생산 재개를 위한 준비 및 정비 단계일 뿐 상업 생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CATL 이춘 리튬광산의 본격적인 생산 재개 시점은 기존 시장 기대보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8/10 현금배당 규모 62억위안

- 8/3 CATL은 2026년 중간배당 실시 결정. 자사주 제외 기준 43.8억주대상으로 10주당 14.1위안 현금배당 지급. 총 현금배당 규모 61.8억위안. 이번 중간배당의 권리기준일은 8/7, 배당락 및 현금배당 지급 예정일은 8/10.

핑루운하 그룹 전기 선박에 CATL 배터리 탑재

- 8/1 CATL은 핑루운하그룹과 전략적 협약을 체결. 핑루운하는 9월부터 전면적으로 전기선박 운항 관리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며, 시범 운항하는 첫 번째 전기선박에는 CATL의 선박용 동력배터리 시스템이 탑재될 전망. 또한 선박 구매 시 배터리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임대하는 '배터리 뱅크(Battery Bank)' 모델도 함께 도입할 계획. CATL이 자동차를 넘어 선박용 배터리 시장에서도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향후 양사는 선박 전동화뿐 아니라 운하 연선에 풍력·태양광 발전소, ESS,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

이차전지

이차전지: 북미/유럽/기타 지역 ESS 시장규모 중국 추월, CATL 북미 점유율 1위 유지

- 8/5 SNE리서치에 따르면, 1H26 글로벌 리튬이온 ESS 출하량은 461.3GWh로 YoY +71% 증가. 중국은 여전히 최대 시장이지만, 북미·유럽·기타 지역의 합산 비중(56%)이 처음으로 중국(43.9%)을 추월. 중국의 출하량 비중은 1H25 50.5%에서 1H26 43.9%로 하락.
-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가 전력망(Grid)용 ESS 수요를 견인하면서, 글로벌 ESS 수요의 중심이 중국에서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는 국면.
- CATL의 1H26 ESS 배터리 출하량은 125.0GWh로 YoY +81% 증가, 시장점유율도 25.6%에서 27.1%로 확대. 2위 이브에너지는 48.0GWh(YoY +69%, 점유율 10.4%), 3위 Hithium은 46.2GWh(점유율 10.0%), 4위 BYD는 35.7GWh(점유율 7.7%)를 기록. 상위 7개 업체는 모두 중국 기업이며, 상위 3개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45.8%에서 47.5%로 상승. 중위권 업체 간 격차도 크게 축소돼 5~7위 업체의 출하량 차이는 약 1GWh에 불과.
- 북미 시장에서는 CATL이 29.5GWh를 출하하며 점유율 38.8%로 1위를 유지했고, Hithium은 13.1GWh(점유율 17.2%)로 2위를 기록.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서 10.3GWh를 출하하며 점유율을 4.2%에서 13.6%로 확대, 3위에 올라섬.
- 용도별로는 전력망(Grid)용 ESS가 347.0GWh(YoY +69%)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으며, 가정용 ESS는 출하량이 47.7GWh(YoY +12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 SNE리서치는 북미와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및 공급망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현지 생산능력, 규제 준수 여부가 공급업체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 또한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용 ESS 수요 증가로 일부 제품에서는 셀 공급이 빠르게 타이트해지고 있다고 분석.

산업재

태양광: 미국, 폴리실리콘 제품 15% 관세, 최저수입가격 제도 발표 예정

- 8/6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폴리실리콘 기반 제품에 15% 관세와 최저수입가격(Price Floor) 제도를 발표할 예정. 대상은 폴리실리콘뿐 아니라 웨이퍼, 태양전지(Cell),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 전반. 목적은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견제하고 미국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
- 폴리실리콘은 초고순도 실리콘으로, 반도체와 태양광 제조 공급망의 가장 상류에 위치하는 핵심 소재. 미국은 태양광 패널 수요가 커야 폴리실리콘 생산 기반이 유지되므로 반도체 산업도 태양광 산업에 일정 부분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 글로벌 폴리실리콘 수요 중 반도체 비중은 2.4%에 불과해 태양광 산업이 생산기반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함.

양광전력(300274.CH): 최대 10억위안 자사주 매입 공시

- 8/3 양광전력은 5~10억위안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공시. 매입한 주식은 소각이 아니라 직원 주식보상(ESOP·주식 인센티브)에 사용할 예정. 다만, 최대 매입 물량은 발행주식의 0.26% 수준으로, 유통주식 수 감소 효과는 제한적.

BYD

상장 국가

중국 본토/홍콩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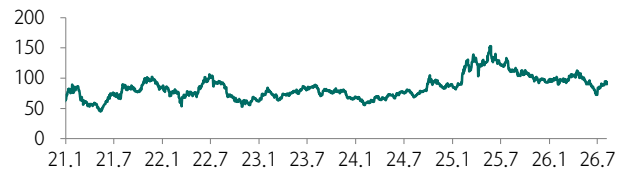
자동차 및 트럭 제조

시가총액(조원)

59.9

최근 주가 추이

(HKD)



유럽에서 고성장 확인, 2Q26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 2026년 BYD는 견조한 해외 판매가 중국 내수 판매 둔화를 상쇄하고 있음. 경영진은 2026년 해외 판매가 기존 목표인 150만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BYD의 해외 판매량 비중은 2025년 23%에서 2026년 7월 44%까지 확대. 과거 아시아 중심이었던 해외 판매는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확대, 특히 유럽은 BYD의 핵심 성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BYD 해외 판매량 중 유럽 비중은 2025년 31%에서 올해 35%까지 확대되었고 남미 비중 역시 24%까지 확대.
- 중국 브랜드의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5년 11%에서 2026년 17%로 크게 상승, BYD의 점유율은 약 7%로 추정. SNE에 따르면, BYD의 6월 유럽 판매량은 3.9만대로 YoY +60%, 상반기 누적 판매는 18.5만대로 Tesla(17.2만대)를 넘어섬. 남미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뚜렷. BYD의 7월 브라질 판매량은 2.3만대로 전년 동기(9,680대)를 두 배 이상 상회, 브라질 전체 신차 시장 점유율은 9.1%로 4위를 기록. BYD는 브라질 연간 판매 목표를 20만대로 제시.
- 2Q26 매출/순이익은 각각 YoY +8%/+30% 증가하며 지난 3개 분기 동안 이어졌던 역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실적 턴어라운드와 해외 판매 확대가 주가 하방을 지지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EU의 중국산 PHEV 추가 관세가 핵심 변수.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BYD는 유럽 시장 내 가격 경쟁력과 점유율 유지를 위해 관세 부담의 일부를 자체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해외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만, 해외 판매 차량의 수익성은 여전히 중국 내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는 만큼 일정 수준의 마진 방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중장기적으로는 4Q26 가동 예정인 헝가리 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며 유럽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브라질 생산 첫 PHEV 출시

- 8/4 BYD는 브라질 생산 첫 PHEV인 Song Pro Super-Híbrido Flex Fuel 출시. 이는 전기·휘발유·에탄올 모두 사용 가능한 파워트레인 적용되었고, 순수 전기 주행거리는 GL 모델이 60km, 상위 GS 모델이 120km. 브라질 소비자와 연료 환경에 맞춰 중국-브라질 R&D팀이 공동 개발. 해당 모델은 2027년 1월까지 현지 부품 사용 비중 50% 이상 달성 목표. 현재 타이어 등 일부 부품은 현지 조달 중이며, 향후 배터리도 현지 생산할 계획. 기존 SKD(반조립) 방식에서 완전 현지 생산 체제로 전환 중. Song Pro Flex는 브라질 시장을 위해 개발됐지만, 에탄올 연료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도를 포함한 다른 시장에도 출시될 수 있음.

전기차

전기차: 7월 전기차 판매량 업데이트, BYD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세

- BYD: 41.1만대(YoY +20.5%, MoM +3.5%)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세 기록, 이는 2025년 7월 판매량이 YoY +0.1%로 저조했기 때문. MoM 증가세는 +3.5%로 6월과 유사한 수준. 해외 판매량은 18.1만대(YoY +123.6%)로 역대 최고치 기록하며 중국 국내 판매량(YoY -9%) 감소세 상쇄.
- 지리자동차: 15.8만대(YoY +21.5%, MoM -0.4%)로 6월(YoY +30%)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 지속. 해외 판매량은 6.3만대로 YoY +616% 증가해 6월(6.2만대 YoY +532%) 대비 증가폭 확대. 해외 판매가 중국 내수 시장의 부진을 상쇄하는 모습 지속.
- 샤오핑: 3.8만대(YoY +3.6%, MoM -5.2%)로 4개월 연속 이어졌던 MoM 증가세가 종료.
- 샤오미: 3.0만대로 4개월 연속 월간 인도량 3만대 돌파. 7/30 샤오미는 Sky Nomad EREV SUV 시리즈 사전판매를 시작, 정식 출시는 9월.
- 리오토: 3.0만대(YoY -0.9%, MoM -1.4%)로 YoY 역성장폭이 전월 대비 축소.
- 니오: 3.6만대(YoY +71.0%, MoM -11.5%)를 기록. 5월과 6월 연속 MoM 증가 이후 7월에는 판매가 둔화되며 MoM 역성장. 신형 ES8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판매는 견조했지만, ONVO와 Firefly 판매 둔화로 전체 출하량은 전월 대비 조정을 받음.
- BYD와 지리자동차는 해외 판매 확대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샤오핑, 리오토, 니오는 모두 전월 대비 판매가 감소하며 프리미엄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를 키웠음. 시장에서는 하반기 중국 내수 수요 회복 여부와 함께 가격 경쟁 재개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는 모습.
- 8/4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EV 확산이 이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음. 연초 이후 휘발유 수입량과 중국산 전기차 수출을 비교해 보면, 여러 주요 국가에서 매우 뚜렷한 공통된 패턴이 나타남. 호주, 브라질,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캐나다, 미국, 나이지리아, 일본은 모두 올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휘발유 수입은 줄인 것으로 확인.

샤오미(1810.HK): Sky Nomad 시리즈 사전 판매 호조 확인

- 8/5 샤오미 Sky Nomad(N70/N90) 사전주문이 10만대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제기됨. 현재 샤오미는 중국 내 판매점 499개를 운영 중, 베이징·우한·상하이·청두 등 여러 매장을 조사한 결과, 매장당 일반적으로 200~300건의 의향금(예약금) 주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

니오(NIO.US): 5세대 배터리 교환소 오픈 예정

- 8월 초, 니오는 중국 내 4,000번째 배터리 교환소이자 첫 5세대 배터리 교환소 오픈 예정. 5세대 배터리 교환소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적용. 다양한 휠베이스 지원 가능. 기존에는 Firefly 모델의 휠베이스가 너무 짧아 니오의 기존 교환소를 이용할 수 없음, 5세대 교환소가 운영되면 니오, Onvo, Firefly 등 3개 브랜드가 하나의 교환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됨. 경영진은 7월 니오 브랜드 ASP가 6월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언급, 고가 신차 ES9(49.8만위안부터) 판매 확대와 ES8 판매 호조로 고마진 모델 비중이 높아지며 수익성 개선 기대.

로보틱스

드론: 중국 상무부, 미국향 드론 수출 통제 강화

- 8/5 중국 상무부는 수요일 중국 내 기관과 개인이 미국 기관 7곳과 거래하는 것 금지, 미국으로 수출되는 드론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 통신사, 시험기관, 드론, 소비자용 공유기, 해저케이블, 첨단 로봇 장비, 전력 인버터 등을 겨냥한 최근 미국의 규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 이번 발표는 로이터가 트럼프 행정부가 광트랜시버를 포함한 중국산 데이터센터 부품의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하는 국가안보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직후 발표.

유니트리(688836.CH): IPO 공모가 150.8위안, 기업가치 610억위안

- 8/6 유니트리는 IPO 공모가를 150.8위안으로 확정했으며, 이에 따른 기업가치는 약 610억위안(90.4억USD)으로 평가됨. 이는 로이터통신이 지난해 9월 보도했던 최대 기업가치 500억위안을 상회하는 수준. 8/10부터 기관·일반 청약을 진행하며, 총 4,044.64만주(상장 후 총 주식수의 10%)를 발행해 약 61억위안을 조달할 계획. 한편, 중국 AI 기업 덩시크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짐.
- 7/30 공시에 따르면, 유니트리의 1H26 잠정매출은 10.5~11.3억위안으로 YoY +35.6~45.4% 증가, 잠정 조정순이익은 2.4~2.8억위안으로 YoY -22~-6.4% 감소. 2Q26 매출은 6.3~7.1억위안으로 YoY +20~34% 증가, 순이익은 2~2.6억위안으로 YoY -263~-301% 감소, 조정순이익은 2.0~2.4억위안으로 YoY -10~+12%로 예상. 조정순이익 역성장은 R&D 투자 확대와 판매비 증가가 주요 원인. 다만, 1Q26(YoY -53%) 대비 조정순이익 감소폭은 크게 축소되며 수익성이 회복되는 모습.

자율주행: L3/L4 자율주행 안전 사항 구체화

- 8/4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L3-L4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GB 44721-2026)을 발표했으며, 2027/07/01부터 시행 예정. 중국 최초의 L3-L4 자율주행 국가 통합 안전기준으로, 국제기준(ADS GTR)보다 L3-L4 기술 요구사항과 시험 시나리오를 더욱 구체화한 것이 특징.
- 기준에 따르면 L3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전자의 인수(Take-over) 준비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시스템 활성화·비활성화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대기(Ready), 작동(Active), 종료(Exited) 등 시스템 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
- 중국은 2025년부터 해당 표준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12월 일반 승용차에 대한 첫 L3 자율주행 판매를 승인. 창안자동차의 딥알(Deepal)과 베이징자동차(BAIC)의 아크폭스(Arcfox)가 최초 승인 대상이었음.
- 올해 중국 승용차의 L2 운전자보조 시스템 보급률은 70.5%, 내비게이션 기반 자율주행(NOA) 기능 보급률은 34.2%를 기록. MIIT는 향후 지능형 커넥티드카 시장 진입 관리와 자율주행 시험방법, 안전사고 데이터 교환 등 관련 표준을 지속 보완할 계획.

포니(PONY.US): 자율주행 트럭 배치 확대

- 8/6 Pony AI는 향후 2~3년 내 4세대 자율주행 대형트럭 500~1,000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 장거리 화물 운송, 벌크 화물 운송, 항만 물류 등 3개 핵심 분야에 우선 투입할 예정. 경형트럭은 대형트럭보다 빠른 확산이 예상되며, 2030년까지 L4 자율주행 경형트럭 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제시. 4세대 대형트럭은 자율주행 하드웨어 비용을 이전 세대 대비 약 70% 절감했으며, 2만 시간 또는 최대 100만km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2025년 11월 기준 약 200대의 자율주행 트럭을 운영하며 누적 화물 운송량 10억 ton-km를 돌파. 1Q26 로보트럭 매출은 상업 운행 확대에 힘입어 1,020만달러(YoY +31%)를 기록.

위라이드(0800.HK): 덴마크 로보택시 시장 진출

- 8/3 위라이드가 덴마크 전기 모빌리티 업체 GreenMobility와 협력해 덴마크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 위라이드는 규제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공공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이번 진출로 위라이드는 유럽 6개국(덴마크·스페인·슬로바키아·프랑스·벨기에·스위스)에서 사업을 전개하게 됨. 중국 자율주행 기업들은 중동에 이어 유럽을 핵심 해외 성장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과 중국 내 규제 환경 속에서 해외 상용화를 적극 추진 중.
-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6E	2027E	2026E	2027E			
CXMT(688825.CH)	(3.7)	21.0	65.5	399.8	61.6	8,072.3	71.9	42,666.9	0.0	-
기가디바이스(603986.CH)	1.7	31.6	38.2	138.2	30.8	477.1	28.4	438.7	36.0	2026-08-24
캠브리콘(688256.CH)	5.6	114.6	38.1	179.7	84.3	189.8	90.4	210.9	5.1	2026-08-07
해광정보(688041.CH)	5.1	148.0	17.7	56.4	46.6	81.6	64.5	80.8	0.0	2026-08-13
비렌테크(6082.HK)	21.2	-	2.3	129.0	252.6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8-19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5.8	-	(12.6)	176.9	128.5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8-19
북방화창(002371.CH)	8.1	70.7	17.5	28.5	28.9	38.5	45.3	39.5	0.1	2026-08-25
AMEC(688012.CH)	5.1	87.0	13.4	34.4	36.0	74.5	36.0	139.6	8.1	2026-08-19
SMIC(0981.HK)	3.3	62.8	4.8	23.5	18.6	54.6	42.6	51.2	0.0	2026-08-13
JCET(600584.CH)	15.5	59.2	7.4	13.1	15.1	48.4	39.6	55.0	0.0	2026-08-20
란치테크놀로지(688008.CH)	1.7	68.4	21.9	37.0	45.9	61.2	50.5	62.9	0.0	2026-08-31
빅토리아언트(300476.CH)	31.4	28.8	27.4	69.8	75.9	105.0	82.5	79.9	0.0	2026-08-26
중지쉬창(300308.CH)	5.9	37.7	62.2	161.6	77.5	195.8	83.1	166.0	(0.4)	2026-08-23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20.4	23.4	31.1	61.7	32.6	71.3	33.0	69.4	0.0	2026-08-11
즈푸AI(2513.HK)	10.1	-	10.4	481.4	196.0	적지	적지	적지	(0.0)	2026-08-19
알리바바(BABA.US)	3.7	19.2	8.8	9.7	12.0	(11.6)	40.0	116.7	2.4	2026-08-28
텐센트(0700.HK)	0.8	13.8	19.4	9.9	9.6	5.4	10.3	26.7	(0.2)	2026-08-12
바이두(BIDU.US)	(1.6)	15.3	5.2	(0.2)	6.9	140.0	20.3	6.4	(2.3)	2026-08-18
레노버(0992.HK)	8.7	17.4	29.3	13.9	12.7	31.6	27.4	24.7	(4.6)	2026-08-13
샤오미(1810.HK)	(6.7)	21.4	9.2	1.5	18.2	(37.3)	34.9	(13.8)	(5.2)	2026-08-18
유비테크(9880.HK)	6.4	-	(4.6)	92.2	51.3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8-31
BYD(1211.HK)	(4.6)	17.6	15.1	13.5	10.1	22.2	28.9	30.4	0.4	2026-08-14
CATL(300750.CH/3750.HK)	(1.8)	18.6	24.6	46.5	22.1	32.6	24.2	39.3	(0.1)	2026-10-20
양광전력(300274.CH)	3.2	14.7	26.4	14.3	19.4	7.7	24.0	16.0	(0.3)	2026-08-28
선도지능(300450.CH/0470.HK)	1.9	22.9	17.0	31.2	27.6	60.2	38.6	52.4	0.3	2026-08-28
허사이트크(HSAI.US)	5.0	30.6	6.4	43.6	40.3	23.8	65.8	31.5	0.0	2026-08-18
중천과기(600522.CH)	13.2	17.3	16.7	23.3	14.8	154.2	42.7	124.8	0.0	2026-08-27
사원전기(002028.CH)	2.6	30.2	23.5	31.7	29.2	33.5	37.6	31.7	0.0	2026-08-14
동방전기(600875.CH)	8.8	19.5	10.0	10.3	8.4	35.6	31.9	26.2	0.0	2026-08-28
평균	6.1	40.5	19.0	80.4	48.7	398.7	43.8	1,782.9	1.4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2026년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여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여지)는 2026년 8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